

체계적 재활용 사업으로 산업환경 변화 선도

실무 경험 살려 회원 권익 옹호, 업계 발전 도모

이종원 / (사)한국PET병재활용협회 회장

지난 4월 29일 서울교육문화 회관에서 PET용기 재활용 의무 생산자, 사업자 및 대형 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PET병재활용협회 창립 총회가 개최됐다.

(사)한국PET병재활용협회를 이끌어 나갈 초대 회장으로는 이종원 (주)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이는 회원 권익을 옹호하고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위해서는 실무경험자가 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업계에 형성된 것이다.

이 회장은 "저를 믿고 (사)한국PET병재활용협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폐PET병 재활용을 통해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결코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산업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음료 소비량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와 더불어 PET용기의 사용 또한 증가했다. 이에 발맞추어 PET 재활용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으며, 이제는 당연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규격화되지 않은 재활용 체계로 인해 재활용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PET병 재활용을 위한 전담 기구가 없어 효과적으로 체계화시키지 못한 이유가 크다 할 것이다. 그렇기에 (사)한국PET

병재활용협회의 창립은 PET병 재활용에 큰 의의를 갖는다.

이 회장은 "우리 협회는 적은 수의 기업으로 출범했지만, 회원사 모두의 노력이 모든 부분에 전파되어 실천을 위한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될 것이며, 재활용 산업의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투명한 관리를 통해 주 생산자 업체가 산업환경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PET재활용 기술력의 취약도 한 문제이겠지만, 기술 자체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에 의한 제품의 수요 및 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어려워 재활용 시스템 전체적인 경제성 확보 실패의 연속성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전

국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운영을 효율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비용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시스템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바람직한 제도 및 정책적 배려가 있을 때 더 우수한 환경성과를 거두어 환경과 경제를 고려한 재활용산업이 구축되고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피력했다.

앞으로 (사)한국PET병재활용협회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처리 목표를 달성지원 및 PET병 감량화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대체 유도, 적법한 재활용업체 선별 육성으로 2차 환경오염 방지, PET병 압축기 지원으로 지자체·수거업체 분리수거 촉진, 홍보활동으로 통한 소비자의 재활용 의식전환에 주력할 것이다.

이 회장은 덧붙여 “지역별 회원사와 공동계약체결을 통해 전국의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과 민간처리업체와의 공동처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PET병 재활용 촉진을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타 재활용사업자 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뒤늦게 뛰어든 PET병 재활용을 빠르게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며, 재활용이라는 공동 목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공동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밝혔다.

(사)한국PET병재활용협회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국내 시장에 대한 안정을 꾀한 후 시각을 넓혀 PET병재활용에 대한 해외전시회

나 기술심포지엄의 참가와 참관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가장 큰 잠재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시장을 더욱 확대해 재활용 산업의 발달을 유도,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더욱 필요하므로, 협회차원에서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포장업계는 선진국의 신기술과 국내 기술의 Bench Marking에 의한 독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신제품 개발 노력에 힘써 줄 것을 기대하며, 재활용협회(사업자단체)는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오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경제의 상호논리에 부합하는 노력이 있을 때 재활용산업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재활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시 감시할 수 있는 Monitoring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량의 통계자료를 산출하여 EPR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동시에 낙후된 기술을 한 단계 Level up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PET병 재활용 사업에 첫 발을 내딛은 (사)한국PET병재활용협회의 활발한 활동과 이를 이끌어 나갈 이종원 초대회장의 활약에 주목해 보며 PET병재활용 사업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 본다. ☐

권해진 기자